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는 '고공행진' 주택대출자 '이자고통'에 운다

변동 금리 10% 육박 ... 국민銀 2004년 이후 최고 수준

서민 대출자 거치 기간·만기 연장 특단 조치 서둘러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대출금리가 2004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대출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택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동금리형 대출 금리가 10%에 바짝 다가서고 있어 서민 대출자를 위한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는 연 6.72~8.22%로 지난 주보다 0.11%포인트 올랐다. 이는 2004년 금리 체계 변경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기업은행도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가 지난 주보다 0.10%나 오른 연 7.00~8.50%에 달하면서 은행권 최고 금리를 기록했다. 이같은 고금리 추세는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에증서(CD)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D금리는 지난 10일 현재 연 5.98%로에 달한다. 이는 한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된 9일보다 0.02%포인트 오른 것으로, 이날 들어서만 0.15%포인트나

■ 변동금리형 주택대출금리 (단위:%)

금리	대출금리	주간 상승폭
국민은행	6.72~8.22	0.11
우리은행	6.87~8.17	0.12
신한은행	6.77~8.07	0.12
하나은행	7.08~8.38	0.10
외환은행	7.09~8.37	0.10
기업은행	7.00~8.50	0.10

뛰었다. 당국의 금리인하 정책과 의지가 시장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CD금리는 최근 은행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바람에 은행채 금리와 함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가계의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변동형 주택대출은 전체 주택대출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CD금리 급등은 전체 가계의 이자 압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금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3~5년 전에 집을 구입한 대출자들은 연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들 대출자는 조만간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출자에 대한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 정부의 조치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과도한 상환 부담으로 인해 연체율이 높아질수록 금융발 위기가 가계경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는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해 거치기간이나 만기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도 시장의 불안에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가계 대출 전반에 대한 거치기간 및 만기를 반드시 연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금융패닉 이번주가 고비

G7·G20·IMF·세계은행 총재 연쇄회담 국제공조 논의 잇달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잇따른 고강도 처방에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선진 7개국(G7)과 G20의 중앙은행 총재, 재무장관,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세계은행 총재 등이 주말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전방위적 대처의 의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공조 '악발' 발휘할까>=미국을 필두로 유럽 각국이 번갈아가며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증시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 3개월물 달러에 대한 리보 금리(런던 은행간 금리)는 10일(현지시간) 0.07%포인트 상승한 4.8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일본 등은 금융위기 사태 이후 전례없는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사상 최대규모인 미 정부의 7천억달러 구제금융, 각종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예금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조치, 주요국 중앙은행의 동반 금리인하,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기업어음(CP) 직접매입 등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처방에도 국제 금융시장은 여전히 민사상태다. 이런 가운데 10~13일 미 워싱턴에서 연쇄적으로 열리는 G20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례총회에서 IMF를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논의

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일본이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IMF가 외환보유액이 풍부한 중국·일본·중동 산유국으로부터 달러를 지원받아 대출한다는 것이 골자다. 세계 1위 외환보유국인 중국의 참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이번 회의에 참석해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고비 넘기나>=국내 금융시장의 안정 여부 역시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과 맞물려 있다. 현재의 외화 유동성 경색이나 증시의 하락 등이 모두 근원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수출 대기업들이 달러를 풀기 시작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도 이번 주에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극심한 날뛰기 장세를 보였던 외환시장은 이번 주 초반이 추세적인 안정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중반 1,500원에 육박했던 환율은 단기 고점이라는 경계 심리와 수출업체의 달러매물 등으로 이틀간 급락하며 1,309원으로 고점을 낮췄다. 삼성전자가 이어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이 보유 달러를 내다 팔면서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물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학원 3곳 중 1곳 카드 안 받는다

불황을 모르는 사교육 업체인 학원들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데다 가맹학원들의 카드 수납금액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소비자들의 절반 이상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학원들의 이런 행태는 세정당국에 소득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제결제국 회계개혁위원회 이광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학원 사업자 10만5천829곳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은 7만617곳로 가맹률이 66.7%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원들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정부의 계속된 노력에도 2006년 63.7%에서 지난해 64.9%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 가맹학원들의 카드 수납금액도 지난해 5조3천710억원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59층 '워킹온더클라우드'에서 모델들이 커플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으로 라벨링한 와인과 돌린 전방열비터 관리 등을 포함시킨 '러브와인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가격은 22만5천원(2인 기준) 온라인 쇼핑몰 63이슈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연합뉴스

내년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 2011년까지 조정기 진입

가계부채 증가세가 내년부터 크게 꺾이면서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국내 가계부채 특성과 해소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 96년 1분기 이후로 3번의 확장기와 2번의 조정기를 거쳤다"며 "내년부터는 3번째 조정기에 진입, 2011년 상반기까지 조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금은 2006년 1분기부터 진행되고 있는 확장 국면의 마무리 단계이지만 내년부터는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결국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작년 2분기부터 조정기에 진입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조정을 거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판매신용 부문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조정국면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조정기에 들어서면서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문직·운동 선수 등 국민연금 422억 채납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과 연예인,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채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1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관리 대상 채납 보험료 징수현황' 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연금보험료를 1년 이상 장기 채납한 사람 중에서 전문직과 연예인, 직업 운동선수 등 8천310명이 채납한 보험료는 2월 말 현재 422억4천4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올 주식형펀드 55조 날렸다

올해 들어 글로벌 시장의 동반 급락세가 지속하면서 국내외 주식형펀드의 평가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무려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글로벌시장의 활황세에 힘입어 23조원 가량의 평가이익이 생긴 점을 고려하면 1년도 안 돼 작년에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날리고도 31조원 정도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주식형펀드서 55조원 사라졌다>=12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해외주식형펀드(이하 공모형) 1천359개의 평가손실 규모는 9월 기준으로 연초대비 30조77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식형펀드 1천35개의 평가손실은 24조4천879억원에 달해 해외와 국내 주식형펀드의 총 평가손 규모는 54조5천655억원에 달했다. 올해 해외주식형펀드 수익률은 -45.19%로 파국됐으며 국내주식형펀드도 -30.97%를 기록했다. <해외주식형펀드 손실 ... '남 좋은 일만 시간 풀'>=지난해 해외주식형펀드는 9조170원의 투자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돼 원화자본을 수출해 무역흑자(미화 151억 달러, 당시 기준 약 14조원)의 절반이 훨씬 넘는 성과를 올렸다. 이 때문에 제품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인 예년과 달리 작년에는 자본수출로 과실을 얻는 '원년'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해외펀드에 대한 평가는 이제 싸늘하게 변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작년에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반납하고도 30조원의 추가 평가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강만수 장관 "외환, 잘 관리할 수 있는 수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제 금융위기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의 외환보유액과 외채구조로 볼 때 최악의 상황에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강 장관은 이날 한국특파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내시장에서 이런 통계를 밝혀 기업들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확신이 서도록 했다"면서 "목(9일) 금(10일) 이틀간 환율이 대폭 떨어졌지만 월요일(13일)부터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재무장관과도 만나 금융위기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협력도 그렇지만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도 중요하다"면서 "국내에서는 선진국의 금융불안이 한국의 금융과 실물경제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유명무실'

아직까지 담당 인력 없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공우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담당인력을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정도로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이란 미국산 쇠고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쇠고기가 미국 작업장에서 국내 최종 판매업

제로 유통되기까지 거리의 모든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체계를 의미하며, 정부는 10월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지난 6월 밝힌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부 백재현(민주당) 의원은 12일 "관세청은 10월중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4천900만원을 들여 전산시스템만 구축했을 뿐 시행시기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면서 "이 시스템 운영에 101명의 단속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한명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항공기 소음 피해 자원 마련 '승객 부담금' 신설 추진

항공기 소음으로 말미암은 공항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의 자원 마련 차원에서 항공료에 승객부담금이 신설될 전망이다.

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내년 이후에도 공항 주변주택 2만8천457호와 34개 학교가 방음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소음 피해대책사업은 소음영향도 75웨를 이상 민간공항으로 한정돼 있어 여수·김포·김해·제주·울산공항에서 시민 시범되고 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항 중 광주(86)·청주(85)·대구(85)·군산(83)·원주(83)공항은 80웨를 넘었지만 소음피해대책 사업지역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공항공사와 소음대책사업에 부담하는 몫을 확대하는 한편 항공료에 승객부담금을 1천~2천원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과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국회의원 27명의 발의로 소음대책 수립대상에 포함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이용할 때 승객에게 3천원 이방 안을 내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제출돼 심사 중이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306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4 18 23 30 34 41	19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2,102,669,520	5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76,183,679	23
3	5개 숫자 일치 1,437,428	1,219
4	4개 숫자 일치 61,822	56,687
5	3개 숫자 일치 5,000	937,697

팝콘복권 (제129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1주 196789
2	1억	2주 258785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990410
4	1백만	각조 81214
5	50만	각조 8566
		각조 39
6	2천	각조 07
		각조 78
		각조 8
7	1천	각조 0
		각조 7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동천미디어	구성직, 광고카피라이터, 광고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4	062-224-5401
신세계 백화점	[광주점]VIP라운지(정규직) 신입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4	02-727-1634
한스메드광주지사	정규직 병영영업 및 관리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10/15	062-369-0513
㈜파란정보기술	웹디자이너	고졸/경력1년	1800~2000	10/15	062-385-0530
에스엠텍(주)	환경 안전관리자 구인	초대졸/경력무관	2200~2400	10/15	011-9047-5532
대한항공개발(주)	건축현장소장/시공.공무/전산회계 경력자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10/16	061-383-0227
㈜에이나라	컴퓨터 사무기기 A/S 및 사무직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6	062-224-6073
광주광주광역시스키협회	광주광역시스키협회 사무행정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6	062-528-1187
모모스칼프	[동구/상수지구]두피관리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6	02-3443-0056
대웅종합건설(주)	종합건설업 사무직 여직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0/17	062-232-2121
광주삼정기업	삼성전자 납품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0/18	062-943-2258
가나기획	광고디자이너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0/20	062-351-2940
한국전화번호부(주)	[KT북광주지점]IPTV/VoIP등 통신상품 상담 및 접수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0	02-2003-589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같은학교, 학생끼리
통화로 50%할인
학교끼리 T타임 할인제도